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2월 20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270장(통214장)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성경봉독 / “출 25:23-30”(구약p.120) / 가족 중에서
- 말 씀 / “진설병 상”/인도자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성소는 매일 레위 족속이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고, 지성소는 매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섬겼던 곳입니다. 이렇듯 레위 족속이 매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들어갔던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설병 상과 등대 그리고 분향 단입니다. 오늘은 진설병 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는 진설병 상의 의미와 장식품, 부속물에 대해 생각하고 그 후에 진설병 상의 상과 떡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진설병 상의 의미

진설병 상은 법궤와 마찬가지로 조각 목으로 짜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구세주 예수를 말합니다. 그 위에 떡이 놓여 있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었으나 실제로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진설병 상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그와 즐거운 교제를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고 드디어는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 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와의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진설병 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과 짝하여 세상으로 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희생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 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 말입니다.

2. 진설병 상의 금테

24, 25절에 “순금으로 짜고 주위에 금 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떡을 만들고 그 떡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상 위에 사면 모서리에 테로 둘러진 떡은 그 위에 놓여 물건을 보호하고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상

위에 놓인 떡은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에도 거두지 않았는데, 이때 솟아난 떡이 떡들을 제자리에 있게 하며 미끌어 떨어지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금으로 장식된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견고한 바위’이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로 피하십시오. 그분의 품은 안전하며 그분의 손은 강력하여 아무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3. 진설병 상의 덮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드러났으며 어떠한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민수기 4:7,8절에 보면 진설병 상의 덮개가 청색 보자기와 홍색 보자기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표현하여 그의 보호하심을 세 가지로 드러냈습니다.

먼저, 청색 보자기는 그리스도의 보호, 즉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보호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호는 모든 마귀의 도전을 물리칠 만한 강력한 보호입니다.

홍색 보자기는 자신의 피를 흘리는 희생의 보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러한 희생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달의 가죽 덮개는 맨 윗 덮개로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지날 때 먼지로부터 상과 떡, 향품 그리고 심지어는 안의 두 보자기까지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세속적인 더러움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자기를 걸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함과 정결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희생시키심으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떡 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강력한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보혈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그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인이 되며 영원토록 그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는 축복 속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기 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송 / 새272장(통330)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주기도문 / 다같이

*광고 :

1. 금주 수요일(2월 23일)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구역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 교우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모든 공무원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소독 등의 생활화와 많은 사람과의 접촉 및 모임 자제에 힘쓰며, 2월에도 거리 두기 삶을 잘 실천하여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